

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변경

절차 간소화하고 평가기준 객관성 높이기 위해 노력

초빙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것은 물론 심사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이 변경됐다. 이는 심사기간이 길고 지원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 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을 학문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 초빙계획으로 변경한 것이다.

어떤 점이 변했나

▲접수에서 예비심사까지 먼저 신규교원 자격이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임용일 이전 학위취득 예정자로 확대됐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 신규교원 지원자격이 박사학위소지자에 한정됨으로써 학위취득이 예정된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예비심사단계 신실로 심사과정도 변경됐다. 따라서 그동안 지원자 전원에게 학과심사를 실시 하였던 것과 달리 예비심사를 통해 선발된 5배수 상위후보자에 한하여 학과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심사는 국제 및 국내저명 학술지 게재(예정)논문 실적만으로 실시되는 연구실적 정량평가가 지원자들의 제출서류 간소화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후보자 선발로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지원인원 과다로 인한 학

과심사의 면접, 공개강의, 질적평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과심사위원회가 학과심사대상자로 2인까지 추가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5배수 상위후보자 이외에도 학과심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예비심사에서 선발되지 못했지만 초빙분야와 전공적합성이 가장 높은 지원자 등 충분한 사유가 있는 지원자의 경우 학과심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학과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교원인사위원장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연구실적 정량평가도 합리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안은 학위취득후 경과기간의 차이에 상관없이 최근 3년간의 총실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해 상대적으로 경과기간이 짧은 지원자들의 경우 연구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변경에서 학위취득후 경과기간에 따라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도록 방침을 정함으로써 학위취득 후 경과기간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없앴다.

▲학과심사에서 임용까지 학과심사는 전제연구실적, 학력, 경력을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교수능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그동안 이뤄졌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정량평가에서 경력평가 항목이 삭제됐고 연구실적 정량평가는 예비심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학과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은 학력, 교수능력으로 간소화됐다. 이로 인해 교수능력 평가에 학과심사의 역량을 집중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과심사원 자격을 소속 전임교원 전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평가항목 배점비율이 크게 변했다. 학문분야를 일반(이론)분야와 예·체능계열 및 창작실기분야로 크게 구분하고 지원자 대부분이 동일한 조건인 학력 배점비율을 낮추고 교수능력평가와 연구실적 정량평가 비율을 높였다. 특히 연구실적 정량평가의 비율이 10%에서 30%로 올라 이는 객관적 평가 지표인 연구실적 비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인이상으로 구성된 연구실적 질적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연구실적 질적평가 비율은 40%에서 25%로 낮았으며 대신 학과 교수 전원이 참석하는

교수능력평가 비율을 10%에서 25%로 높였다. 이는 주관적 평가일 수밖에 없는 연구실적 질적평가와 교수능력평가 중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교수능력평가의 배점비율을 높임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한 방안이다. 한편 단계별 심사결과 2배수 상위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자동 면접심사가 진행되도록 면접후보 추천절차가 변경됐다. 이는 채용절차의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임용결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외의 후보가 선정됐을 때 학과의 견을 반영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관리팀에 보다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논의중에 있으며 특별초빙과 관련하여도 곧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변경된 교원 신규임용 심사배점 및 평가항목 : 일반(이론) 분야〉

항목	배점비율	점수범위	비고
학력	20%	10-40	학과심사위원회 (공동심사)
경력	-	-	* 경력은 호봉상정사(에만 인정함)
연구실적	정량평가	30%	0-60 * 국내 및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예정) 논문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질적평가	25%	0-50 연구실적 질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별 평가)
교수능력	25%	0-50	학과심사위원회 (심사위원별 평가)
계	1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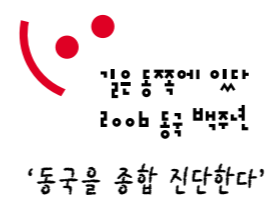


신난 아이들... 지난 13일 건학100주년 기념사업회와 본사 주최로 팔정도에서 열린 '달빛·연등·시 축제'에 나들이 온 충무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꽃컵등 만들기 행사와 시 낭송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종합기획 3. 연구분야 ① 연구실적·연구업적

특성따라 연구평가 해야

우리학교 연구실적 전반적으로 뒤쳐져



대학의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우수한 연구실적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대학들은 연구업적평가제도 기준을 강화시켜 교수들의 연구실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연구실적에는 크게 △국내 학술논문 △국제 학술논문 △저서 발간 △국내학술대회 발표 △국제학술논문 발표 등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연구실적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자.

지난 2004학년도 대학종합평가 기준에 의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임교수 1인당 최근 3년 동안 1인당 국내 학술논문 실적(전문·일반학술지, 공연·전시, 기타 포함)은 △전체=1.19편 △인문사회계열=1.31편 △자연계열=0.72편 △공학계열=1.11편 △예체능계열=1.77편을 발표했다. 자연계열은 21.6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체능계열은 -18.97%로 감소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국제학술논문 실적(전문·일반학술지, 공연·전시,

기타 포함)은 △전체=0.15편 △인문사회계열=0.08편 △자연계열=0.36편 △공학계열=0.16편 △예체능계열=0.04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교수 저서 발간 실적(저서, 번역, 편저 포함)은 1년에 △전체=0.15편 △인문사회계열=0.24편 △자연계열=0.06편 △공학계열=0.04편 △예체능계열=0.13편이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국내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전체=0.93편 △인문사회계열=0.78편 △자연계열=0.63편 △공학계열=1.48편이었으며 공학계열은 지난해의 경우 '마이너스' 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국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전체=0.54편 △인문사회계열=0.46편 △자연계열=0.73편 △공학계열=0.58편이었으며 전체적으로 2.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한 관계자는 "우리학교 교수들

의 연구실적은 전국 50위권 후반을 기록하고 있어 경쟁대학에 많이 뒤처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는 교육강화를 위해 지난해 교원업적평가를 개정했다. 연구논문 양을 중심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연구업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연·공학계열은 연구실적을 올리려면 실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연구를 같이 진행할 대학원생이 부족해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실용학문보다 수요가 덜한 순수학문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이과대 송희자(수학) 학장은 "수학과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1~2명 정도밖에 없다"며 "미국은 우리나라 교육부 방침과 달리 학문 특성에 따라 업적을 연구중심인 지, 교육중심인지를 구분해 평가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황주삼 기자
hjs0228@dongguk.edu

수시·정시 모집요강 발표

2006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 모집요강이 발표했다. 전형유형은 크게 일반우수자와 LST(Leadership Special Talent) 전형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차 전형 때 모집정원의 5 배수를 선발하고 2차 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가리며 모집기간도

한 달정도 늦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에는 △외국어고 출신 △수학·과학 교과 우수자 영역이 전형으로 추가됐다. 수시 1, 2차기와 정시모집의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모집인원 등에 대한 정보는 우리학교 학생선발실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면 된다.

박영석 대장 12일 귀국 그랜드슬램 성공 보고회 18일

박영석 대장이 지난 12일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에 오는 18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홀에서 박영석 대장 그랜드슬램 성공 보고회가 열린다. ▶관련 인터뷰 7면
보고회는 △귀빈소개 △총장인사 △원장대장 인사 △축사=영원무역회장, 대한산악연맹회장, 한국산악회 회장 △영상 △원정대 소개 순으로 진행되며 500명내외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축구부 전국대회 출전

야구부는 18일 동대문 야구장서 경기

우리학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2005합벨코리아배 제6회 전국대학축구대회'에 출전한다. 이번대회는 총 62개의 대학이 출전, 16개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조별 2위 이상 팀만 결선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지금까지 치른 3경기

를 모두 승리하고 오늘(16일) 인제대와 32강 경기를 전남 광양 중동공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야구부(감독=김학용)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제55회 전국중합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첫경기는 경남대와 송호대 경기 우승자와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적표 전자우편 발송

이번 학기부터 성적표가 전자우편으로만 발송 될 예정이다. 이는 우편물로 발송된 성적표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고 전자우편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 한 관계자는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대동제 자유이용권

유효기간 : 5/23 ~ 25, 본 자유이용권은 무료입니다.

2004년도 기관평가 결과 발표

‘업무성과 극대화’ 취지 긍정적 ... 객관성 강화 필요

2004학년도 기관평가 시행 결과가 발표됐다.

학과에서는 중어중문·전자공·북한학과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경찰행정·국어국문·이수기관으로, 영어영문·산림자원·산업시스템공학이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총 20개 학과가 심사·평가 받은 가운데 선정된 것이며 포상금으로 △최우수기관=400만원 △우수기관=200만원 △장려기관=100만원 지급받는다. 이어 행정지원실에서는 문과대·공과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만원을 지급받으며 최우수기관과 장려기관은 미선정됐다.

중앙행정부서에서는 학사지원실·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학생복지실·총무팀·취업지원팀·연구개발팀이 우수기관으로, 재무회계팀이 장려기관으로 결정됐다. 포상금은 △최우수기관=200만원 △우수기관=100만원 △장려기관=50만원이다.

중앙행정부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학사지원실=대면 출석부제 및 배포,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구축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동국 TV 불교아카데미 DVD 제작, 도서관 전산화, 100만대·공과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만원을 지급받으며 최우수기관과 장려기관은 미선정됐다.

중앙행정부서에서는 학사지원실·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립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업무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이러한 기관평가의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행정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관별 분권화 대비 자생 역량을 육성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학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당부서에 평가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차년도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은 효율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평가기준의 객관성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기관평가 시행된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관평가와 관련해 해당 부서와 평가부서간의 활발한 의견교환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동참하는 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면 오히려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팀의 박정순 과장은 “2005년도 평가부터는 부서별 제안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기관평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소음방지 카페트 ... 민해관 열람실에 카페트가 깔렸다. 위에서 뛰어도 소음이 나지 않는다는 카페트 덕분에 열람실 환경이 더욱 좋아졌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희전문대

잃어버린 홈페이지

○...최대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한 요즘 학생회 산하 기구들의 홈페이지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데.

알아본즉 학생들의 관심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해 홈페이지가 무심히 방치되고 있다는 것.

학생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활성화가 필수적이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답힌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의 열린 반응을 기대하나?”

오류무중?

○...요즘 사이버강의가 원인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데.

내용인즉, 사이버강의 출력체과 강의 프로그램이 종종 오류가 난다는 것.

가상대학에서는 이를 개인PC환경 때문이라고 하고 학생들은 수강시스템의 오류라고 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대안이 없다는데.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시스템 오류 대안! 원인과 함께 사라지다.”

공포의 ‘문’

○...학림관 화장실이 일부 학생들에게 위험지대로 인식되고 있다는 데.

알아본즉 현재 스승도어 형태로 돼있는 화장실 문이 자유자재로 열려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불평을 당하고 있다는 것.

화장실문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스승도어에 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화장실 주위를 지나다 뜻밖의 사고를 당한 한 여학생 알 “잠을 수 없는 학림관 화장실 문의 가벼움!”

계단 난구

○...최근 우리학교 상록원에 가기 위해선 살금살금 신중하게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대운동장에서 상록원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의 나무판자가 갈라지고 깨지는 등 심하게 손상돼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칫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선 미리 점검해서 복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조심조심, 상록원에 가기 위한 힘겨운 여정(!)”

신임 정진환 중앙도서관장 인터뷰

“학생들의 생활속 도서관,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



올해 각 부서 주요 업무 계획과 목표를 알아보기 위해 본사에서 새로 취임한 처·실장과 부속기관장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A/V실은 학과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 이번 학기 중앙도서관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사자료정보화 사업으로 교육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았다. 따라서 고서나 장서 등 역사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도서관의 기본적 역할인 장서 보유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00만권 확보를 이미 달성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도서관구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50%정도 더 배정되어 도서관구입 사업의 전망이 밝다.

-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도서관의 주인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도서관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고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 에티켓을 지키는 것에 대한 당부도 하고 싶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오는 20일 에코포럼 열려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 마련

불교와 생태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과 문화적 만남을 지향하기 위해 구성된 에코포럼이 ‘제8회 정례포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예술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태영화 ‘나무를 심는 사람’(1987, 프레데릭 벡) 상영 △신인경(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겸 편집인) 특강이 진행된다.

아름답고 고결한 자연인의 숲살림을 보여주는 생태영화는 30분동안 상영되고, 숲의 내용과 감미로움을 전해주는 신인경의 피아노는

영상 ‘숲 속의 나날들’과 함께 연주된다. 환경과 경제를 주제로 한 김종철의 특강 ‘경제성장은 끝났다. 우리 모두 춤을 추자’는 자연과 함께 그리고 즐거운 생태적 삶에 초점을 맞춰 강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무기획팀의 강중원 연구원은 “5월은 자연의 계절이다. 이제까지 딱딱한 주제를 다룬 전문적인 학술 연구를 벗어나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행사가 에코포럼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무적성검사 실시

오는 16일부터 접수

취업지원팀(팀장=한문우)이 기업의 입사 전형시 시행되고 있는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오는 25일부터 4회에 걸쳐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취업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정원은 매회 70명 선착순 마감이다. 이번 직무적성검사는 취업 준비 중인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세미나실에서 100분내외로 진행된다.

직무 적성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1회=25일 3시 △2회=25일 5시 △3회=26일 3시 △4회=26일 5시.

월정사 명찰순례 참가 접수

18일부터 학생복지실에서

명찰순례가 오는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에서 진행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불교를 통한 인격연마 및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복지실에서 18일부터 25일까지 접수받는다.

참가인원은 45명이고 우리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명찰순례는 △아침예불 및 참선 △주지스님 법어 △아침 공양 △사찰 안내등 생활 속의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학 취업지원 협약 체결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기대

지난 달 26일 우리대학을 비롯한 7개 대학이 서울지방노동청과 관·학 취업지원 협약 협동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관·학 연계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취업희망자 관리-연수지원제, 취업지원제 △취업지원 시설 이용 및 교류 공간 활용

=청소년취업지원실 및 고용안전센터 이용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청소년직업지도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구인정보 공유 △학과별 취업지원활동 공동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관·학 취업지원 협약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청을 비롯한 타 대학과 협력이 활성화돼 보고 학생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개교 99주년 박물관 특별전

불·법·승 삼보의 근본 재조명

개교 99주년 기념 특별전이 오는 11일부터 한달간 박물관 2층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불교에서 기본이 되는 교리인 불·법·승 삼보를 의미하는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불교의 근본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생활 문화유적답사 참가자 선정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이 주최하는 제 2기 생활 문화유적답사 참가신청 결과가 발표했다. 선정된 학생은 △정준영(국어교육학 석사과정) △박동성

이번 전시에는 우리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불상과 불화들, 다양한 관련된 유물들이 출품된다.

이와 관련해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소장 불상과 국보·보물급 유물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어일본) △손시한(경찰행정) △김경민(윤리문화) △이지은(건축) △김혜련(경제) △장지혜(식품) 이다. 이번 생활 문화유적답사 참가자들은 다음달 21일부터 5일간 베트남 전쟁유적지, 호치민 박물관, 하노이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다.

동국대학교 건학100주년 기념사업 공모

1. 공모 분야
가. (100주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제안)분야
① 건물 Wrapping 디자인(가로 1m 세로 ×10cm 내외)
② 행사아이디어
③ 기념품 등 기타
나. (100주년 기념사업 사업비지원)분야
① 본인 또는 해당기관이 주관하여 2006년도에 시행할 사업 또는 행사(예시) 본교 주회 전국규모 학술대회, 학과 50주년행사, 전국규모의 학생행사, 건학100주년 기념사업으로의 의미성과 홍보성이 있는 행사.
② 당선자의 사업비 지원금은 해당 사업(행사)의 총 소요예산의 일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교비 지원으로 시행 예정인 사업은 제외.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Download
① 동대신문사 홈페이지(http://www.dgupress.com) 또는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공지사항 '건학100주년기념사업 공모안내' 신청서식 파일 Download(서식은 '한글 2002' 파일임)
나. 신청기간
① 2005년 5월 9일 ~ 2005년 5월 31일
(평일은 09:00~17:00, 토·일요일은 휴무)
②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중 택일
① 인터넷 접수: 동대신문사의 E-mail dgupress@dongguk.edu로 제출.
② 서면접수: 동대신문사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
라. 제출서류
① 건학100주년 기념사업공모신청서(소정양식) 1부 - 전체공통.
② 세부 사업계획서 1부 - <100주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제안>분야에 한함.
③ 예산계획서 1부 - <100주년 기념사업 사업비지원분야>에 한함.
마. 접수 및 문의처: 동대신문사
(본관과 중앙도서관 사이 V동 1층에 있음)
▷ 전화: (02) 2260-3491~2 Fax: (02) 2279-1270
▷ E-mail: dgupress@dongguk.edu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대신문사(우:100-715)

3. 당선료 발표
가. 발표예정일: 2005년 6월 17일 예정.
나. 동대신문사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4. 상금 및 사업지원비 지급(상금 36,000,000원)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 동대신문사

수요일, 동국음악에 정는다...

동국인의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동국사랑 수요음악회를 엽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캠퍼스에 흠뻑 빠져봅시다!!

동국사랑 수요음악회

5월 18일(수) 12:00 중앙도서관

■ 오케스트라 동아리 OPUS
J. Pachelbel Canon
Claude Bolling Irandaise

■ 사범대학 교육학과 객준규 교수
J. Williams Schindler's List
P. Tchaikovsky Andante Cantabile

■ 클라리네티스트 전용승 패밀리 앙상블
Kenneth Alford Colonel Bogey March
Jun yong sub World Song Medley Variation 사랑으로
J. Brahms Hungarian Dance No.5
J. Strauss Radetzky March

주최: 중앙도서관,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칭찬합시다

본사에서는 2006년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회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내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시다'를 기획 연재한다.

⑧ 학생들의 든든한 '고민 상담가' 박찬규(경영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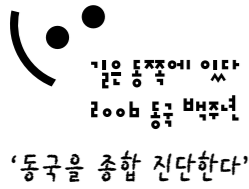
로 추천됐는데,
= 학생들의 고민을 내 일처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했던 점을 좋게 봐준 것 같다. 아직 많이 부족해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할 것이다.

- 자신만의 특별한 상담 비법이 있다면.
=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려고 한다. 우리 단과대 교수들 중 내가 가장 젊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진로·취업 문제인데 이에 대해 인생선배로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다.

- 평소 학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 요즘 학생들이 교수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교수에게 먼저 자기 고민을 이야기 하면서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또한 나는 대학시절동안 젊음을 바친 활동이 없는 것이 항상 아쉬웠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활동이 내 인생에 큰 보람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다.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학업에만 연연하지 말고, 소모임·동아리 등 주역에 남을 만한 활동을 꼭 해보길 바란다.

〈홍〉 khm0826@dongguk.edu

종합기획 3. 연구 분야 ① 연구실적·연구여건



부설 연구기관의 평가제도 개선돼야

외부 연구비 수주를 위한 연구공간 확보의 노력 요구돼

대학은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 확충 등을 통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학내 부설 연구소의 내실화를 통해 교수들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학교 역시 현재 학내 19곳의 부설 연구기관이 활동 중에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기술연구소 등 신생 연구소 3곳과 과학기술부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설치된 SRC, ERC를 제외한 총 14곳의 연구소와 연구센터가 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연구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학내 부설 연구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개발팀에서는 부설 연구기관의 활동을 장려하고 감독하기 위해 매년 교내 부설 연구기관의 현장·서면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연구기관 조직 및 운영관리 △연구여건 및 지원체제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자체평가 및 발전계획 등이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연구기관과 우수 연구기관, 최하위 연구기관 등이 선정된다.

또한 부설 연구기관 중 평가 순위에서 최하위를 2년 이상 기록한 연구소는 지원이 중지되며 평가 순위와 결과 등이 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의 잣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의 잣대가 연구기관들의 특색이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화된 평가기준 필요해

현재 학내에서 진행 중인 부설 연구기관의 평가의 경우 모든 연구기관이 외부수주 연구비의 액수, 학술·연구 활동 결과 등의 일률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순위가 선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학술지, 세미나 등의 학술활동을 위주로 하는 연구기관이나 외부수주 연구비 획득 등을 위주로 활동하는 연구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평가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진행된 일률적인 평가 결과가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각 연구기관별 특색을 고려한 차별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연구공간 확보 시급

한편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서 지원금을 수주 받아 연구를 진행 중인 SRC, ERC, 기능성콜로이드소재 센터 등은 매년 정부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해마다 책정된 연구비를 수주 받게 된다.

하지만 평가 항목 중 학내 연구여건의 조성 상황 등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연구 공간 확보 상황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 연구 공간의 부족 등으로 이러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5년간 정부에서 4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연구 활동을

시작한 기능성콜로이드소재 센터의 경우, 이번 달 안으로 진행될 산자부의 평가를 앞두고 공간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는 산업자원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연구 공간에 절반도 못 미치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센터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활동 중인 연구센터 뿐만 아니라 교외 연구비 수주를 통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구 공간의 확보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족 연구기관들은 학내 연구여건의 개선과 분위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교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는 학교의 중요한 재원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의 더욱 세심한 지원과 평가 지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사설

신임 총동창회장에게 바란다

우리학교 총동창회장이 오는 17일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추대된 후 총회에서 선출된다. 동문활동과 발전기금 상황 그리고 학교와 동창회의 관계가 모두 '불협화음'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조율할 누군가가 필요할 시점이다.

특히 건학 100주년 사업과 불교병원 개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총동창회의 절실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차기 회장으로 현 총동창회장인 류주형(농학57졸)동문과 부회장 김재기(경제 60졸)동문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총동창회장으로 누가 선출될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학교와 총동창회'의 관계이다. 동문은 틀림없이 동국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의사소통이 거의 없다. 소통이라면 총장의 지역동문회 방문이나 총동창회장의 이사회 참석 등이 전부다. 또한 동문들의 소속감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저조한 총동창회 회비납부 실적, 총 10 여곳에서 하는 지역동문회에 2, 30명 정도가 참석하는 등 '얕은 동문사회'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동문과 학교 사이의 관계회복이라 할 수 있다. 아니,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동국사회의 내부결속을 다져야 한다. 학교는 동문사회, 총동창회는 학교에 서로 봉사하며 도와야 한다. 총동창회는 동문사회를 응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도 동문과 재학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교구성원임을 일깨워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총동창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동국발전은 하려면 학교와 총동창회는 함께 발맞추고 손뼉을 쳐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윈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는 신비의 피리 '단파식적'의 교훈이 오늘날따라 그림자다.

교외 연구비 수혜 실태 점검

연구 인력의 확충을 위한 지원책 마련 시급

교수의 연구 여건과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교내·외 연구비 수혜 현황과 결과이다. 대학은 교수들의 연구 실적을 평가해 교내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교외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지난 2004학년도 우리학교 교수들의 교외 연구비 수혜 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1,182만 8천원 △자연계열=6,249만 9천원 △공학계열=8,197만 5천원으로 나타나 2004년도 대학종합평가 결과 타 대학들과의 비교순위에서 30위권 정도의 결과를 기록했다.

현재 국내 대학으로 지원되는 외부 연구비의 경우 약 1조 2천억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다.

그 중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등 교외 연구비 수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5개 정도의 대학이 전체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금액을 수십여개의 대학들이 나눠서 지원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학교의 경우는 현재 서울과 경주캠퍼스 전체 교수들이 해마다 18억 정도의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고 있는 상

황이다. 하지만 경쟁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교외 연구비 수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교수들의 연구 활동 부진으로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 학교의 경우 연구공간과 대학원생 등의 연구 인력이 부족해 해마다 연구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교수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연구비를 수주할 경우 연구과제에 적당한 연구 공간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외부 과제를 수주해 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교수 1인당 연구 대학원생이 2, 3명 정도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전체 대학들의 추세인 대학원생 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의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 부족 역시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산학연구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연구 인력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대학에서는 연

구 인력 확보를 위해 이공계 계열의 교수 연구를 돕는 대학원생의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연구 활동비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도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이공계 연구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학금, 연구 활동비 등의 확충을 고민 중에 있으며, 우수한 학부 학생을 선정해 대학원에 진학해서 해당 교수의 연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

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인력 등의 연구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이러한 이유로 교외 연구비를 수주하지 못해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동국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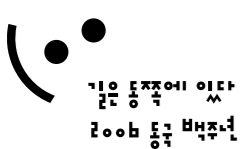
정명근 gmgoe@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김주관, 부편집인: 장성재, 편집장: 정경훈, 편집: 황주상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8 /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한시간을 얻으면 백가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시간이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도 고를 수 있습니다. 평생 느끼고 싶어할 책한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런닝머신, 아령도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한시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필동 - 강북에서도 강남에서도 오시기 편리합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05학년도 후기

www.dongguk.edu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일반대학원	주간	5/23(월)~5/27(금) - 인터넷 5/30(월)~6/1(수) - 방문	6/18(토)	www.dongguk.edu/gs	(02)2260-3116
영상대학원	주간	5/16(월)~5/20(금) - 인터넷접수만	5/28(토)	http://home.dongguk.ac.kr/~dic	(02)2260-3763
불교대학원	야간	5/16(월)~5/27(금)	6/8(수)	http://graduate.dongguk.edu/bs/	(02)2260-3098
행정대학원	야간	5/16(월)~5/31(화)	6/4(토)	http://graduate.dongguk.edu/pa/	(02)2260-3102~3
경영대학원	야간	5/16(월)~5/26(목)	5/28(토)	http://graduate.dongguk.edu/ba	(02)2260-3106~7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교육대학원	야간	5/23(월)~5/27(금)	6/4(토)	http://graduate.dongguk.edu/edu/	(02)2260-3110~1
언론정보대학원	야간	5/23(월)~6/3(금)	6/11(토)	http://graduate.dongguk.edu/ci/	(02)2260-3723
산업대학원	야간	5/23(월)~6/2(목)	6/4(토)	http://gsite.dongguk.ac.kr	(02)2260-3603~4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5/30(월)~6/7(화)	6/11(토)	http://graduate.dongguk.edu/ca	(02)2260-3607
국제정보대학원	야간	5/23(월)~6/3(금)	6/11(토)	http://graduate.dongguk.edu/iai	(02)2260-3733
불교문화대학원(경주)	야간	5/30(월)~6/9(목)	6/11(토)	http://www.dongguk.ac.kr	(054)770-2096
사회과학대학원(경주)	야간	6/7(화)~6/17(금)	6/18(토)	http://www.dongguk.ac.kr	(054)770-2199



브리핑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인문학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아니 대학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고등학교 졸업정원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국립대학들은 통폐합의 회로 속에 있으며, 경쟁력 없는 학과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갈 운명에 처해 있다.

소위 대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을까.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 너무 진지한 이야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도저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없었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따로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대학은 시작되었고, 그 후로 오랫동안 대학은 사회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오히려 사회가 그때의 활력을 상실한 대학을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 심지어는 재무관료 출신의 교육부총리가 대학을 개혁하겠노라 큰소리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혹시 우리가 너무 나태했던 것은 아닐까. 학생은 학생으로서, 교수는 교수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과연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할 수 있을까. 소위 학문을 한다는 것을 핑계로 스스로 사회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경시해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

어려웠던 유학시절 내게 힘이 되었던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있다.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대반열반경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관계 속에 있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니, 끝까지 태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혹시 우리는 대학이란 상아탑이 영원하리라 상상하면서 너무 태만해 왔던 것은 아닐까.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한다.

황 순 일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교수

최근 이른바 '북핵문제'와 관련해 '6월 위기설'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6월 북핵위기는 다만 6자회담이 끝났지만 1년째가 돼 '인내력이 소진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뜻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이 상호간 위기지수를 높이며서 극대화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예정대로 단단계 대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2년 전인 2003년 4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폐기할 수는 없다. 그것들을 '실형' 할 것인지, '수출' 할 것인지, '증산' 할 지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며 대미 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빈말하지 않는' 북한은 이에 따라 지난 2월10일 '핵무기 보유 및 증산 선언'에 이어 추가조치로서 4월초 영변 5MW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번 5월 11일에는 "5MW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8천대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을 중단 기간내에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핵무기 '증산'에 이어 비록 외부에 의해서 이기는 하지만 최근 핵무기 '실형' 설과 핵무기 '수출'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가능성있는 북미 양자회담

이에 대해 부시 미 행정부 역시 일련의 대북 압박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언론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을 잇



논단

이 계 환
통일뉴스 대표

'6월 위기설'과 북핵문제 해법

따라 제기하고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대북 제재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협상 특사는 북미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 해로인 등 마약 밀매, 위조지폐 유통 등 다른 범죄행위도 논의해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 이후와 관련한 대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미 양자간에 나올 수 있는 압박책이 모두 나온 가운데 북한측이 한때 미국측에 '북미 양자회담 개최의도'를 알아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기존의 6자회담과 별개의 새로운 북미간 '직접회담'을 갖자는 것이다. 북미 직접회담에서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러한 직접대화 과정을 통해 양국의 관계정상화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

존의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축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북미 관계정상화 회담', '6자회담=군축회담'의 구도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별개의 북미 양자회담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무조건 복귀를 열망하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6자회담에서 북미 양자회담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평행선을 그던 양자의 입장에 어느 정도 접점이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뺨판' 필요한 6자회담

그렇다면 '6월 위기설'을 잠재우고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북미 양자가 직접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즉,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과 별개의 새로운 북미 직접대화를 받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을 동시에 열어 행사상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직접회담을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북한이 명분상 6자회담이 뛰어난 '뺨판'(springboard)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뉴욕 접촉 채널 등을 이용해 비공개 대화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폭정의 전조기징' 발언 사과나 '주권국가' 인정 등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부 신간안내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사



마츠오 겐지 지음/ 김호성 옮김
2005/국판/268면/12,000원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새롭게 출간한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는 우리와 같이 동아시아 한자 문명권에 위치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 대해, 우리와는 다른 일본의 다양한 불교문화사적 층위를 기존의 딱딱하고 편향적 시각의 단술 기술에서 벗어나 역사적 불교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불교사를 사별, 주제별로 새롭게 조명하고 개괄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츠오 겐지(松尾剛次)는 일본인의 시각으로 불교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본 불교는 물론, 그 내면에 감춰진 일본인의 정신세계까지 쉽고도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역자 김호성(金浩星)은 이방인의 방황한 태도를 견지하며, 풍부한 역사주와 함께 생생한 현지 사진자료를 삽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또 후학들을 위한 일본 참고 문헌을 부록으로 실고 있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책의 내용적 전문성을 보완한 역자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교양과 전문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본불교사의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는 알짜배기의 일본불교 저서이다.

김두재(출판부 과장)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5/16)	콩나물국밥 (1800)	소고기국밥 (1800)	된장찌개 (3200)
	잡채밥 (20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떡볶이불고기 (3800)
	닭조림 (2000)	오무라이스 (2000)	얼무비빔밥 (3500)
화 (5/17)	손만두국 (2000)	삼산적구이백반 (2000)	된장찌개 (3200)
	제육갯잎볶음 (2000)	닭도리탕 (2000)	우거지갈비탕 (4000)
	참치콘볶음밥 (1800)	한치회덮밥 (2000)	두부김치 (3500)
수 (5/18)	부대찌개 (1800)	소고기무국&잡채 (2000)	된장찌개 (3200)
	버섯불고기 (2000)	간지장밥 (2000)	함박스테이크 (3800)
	오징어소면무침 (2000)	라조기 (2000)	뉴지볶음 (3800)
목 (5/19)	소고기미역국 (1800)	설렁탕 (2000)	된장찌개 (3200)
	치킨볶음밥 (1800)	돈육계란조림 (2000)	오징어튀김밥 (3500)
	돈갈통 (2000)	스피게티&볶음밥 (2000)	닭조림 (3500)
금 (5/20)	김치탕 (2000)	김치수제비 (1800)	된장찌개 (3200)
	소고기카레 (2000)	탕수육 (2000)	콩국수 (3200)
	나물비빔밥 (1800)	떡볶고기 (2000)	코다리무조림 (3500)

금주의 추천메뉴

얼무비빔밥 (교직원 월요일 석식)

얼무비빔밥은 매콤한 고추장에 얼무 특유의 씹싸름한 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구는 데 좋다.

얼무김치에는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엽산 등이 많이 들어있어 더위에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준다.

인권침해로부터 국민보호

지난 해 9월 검찰과 경찰의 실무대표로 구성된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가 발족되었다. 이 협의체는 지난 해 1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3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19개 안건에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경찰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의 재정립 등 6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검사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현재의 수사구조가 형사절차전반에 걸쳐 검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형태로서,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불필요한 이중수사를 제거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검찰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수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경찰수사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에서는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될 경우 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와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등과 맞물려서 검찰수사권이 근본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일방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수평적·균형적 관계로 바로잡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의명제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가 곧바로 경찰수사권의 독립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힘들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찰은 일본처럼 지방분권화가 되어 있지 않고 단일체인 국가경찰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달리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관이 먼저 수사를 행하고 검사는 경찰관의 사건송치서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경찰은 경미사건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과 관행에 의한 훈방권까지 행사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과 달리 즉결심판사건 및 훈방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보고하는 부담도 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찰은 10일간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문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배제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검찰이 경찰에 전체 수사권의 조정이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이성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검찰권의 남용과 공정성이 문제되었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시정했던 일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국민으로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경찰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떠안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태명
법과대 법학과 교수

국민위한 후속개혁 계속

1996년 어느 날 필자의 집으로 송파경찰서 수사과로부터 소환장이 날아왔다. 필자가 출두해서 알게 된 사실은 필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관리에 연관된 비리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전임 동대표 중의 한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무려 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신문조서를 꾸며뒀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2주정도 지난 후에 서울 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다시 소환장이 날아와 필자는 가슴에서 또 다시 3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으며, 종당에는 '무혐의' 처리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처럼 형사사법단계에서 이중의 고통을 당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 수사체계에서는 사건이 경미하여 경찰수사관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사건들도 검찰에 송치되어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수많은 시민들이 필자처럼 고통스런 경험을 하게 되고 형사사법절차나 기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수사절차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줄 가능성이 크다면 이러한 법리적 근거를 들이대더라도 현재의 수사관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빚어지는 또 다른 사회적 병리는 검찰의 권력적·금전적 부패라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한 피의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인맥을 동원하여 검찰서기들을 접촉하게 되면 얼씬거리지 않는 경우가 없듯이 이들이 부패하게 되며 종당에는 검사들도 부패할 가

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와 판사의 입직경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의 정부계층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점이 문제다. 즉,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교육을 이수하면 검사로 진출할 수도 있고 판사로 임명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권력적으로, 금전적으로 부패되면 국민들은 사법부가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여 형사사법기관 전체를 비난하게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 법의식과 준법정신이 약화되고 비행자나 범죄자에 대한 비난자(경찰, 검찰, 법원)를 비난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커지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여 변칙이 난무하고 비행문화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거에서 볼 때 해묵은 경찰차질문으로 수사권조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검찰의 자세는 올바른 접근방법이 못된다. 따라서 검찰은 보다 전형적인 사법 수사권 조정문제에 관여하여 저세대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수사관행을 바꿀 때가 되었음을 자인해야 한다.

한편 경찰도 '경찰대학'을 통해서 수사권을 획득하겠다는 식의 변칙적 접근을 펼쳐버리고, 실제 수사에 임하는 비간부 수사경찰관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들을 일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공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김보환
사회과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경찰학회 회장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특강 ②

문제의 원인을 찾는 기법

지난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 했다.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찾는 데에는 3가지 기법이 있다고 했다. 첫째, 3가지 관점(what, when, where)에서 Is와 Is Not의 정보를 정리한다. 둘째, Is 정보의 특징과 변화를 찾는다. 셋째, Is 정보의 특징과 변화로부터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이러한 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동국 씨는 어렵게 취업의 관문을 뚫고 부흥 기대와 함께 S전자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 곧 그 기대는 업무 적

응의 어려움, 상사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으로 바뀌었다. 이동국 씨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위 3가지 방법에 따라 찾아보고 대책을 생각해 보자. 첫째 3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Is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Is Not의 정보를 정리한다. 즉 who 또는 what(대상)의 관점에서 Is가 이동국 씨라고 하면, Is Not은 다른 사원들이 된다. 마찬가지로 when(시간)·where(장소)의 관점에서 Is가 현재의 S전자 기획팀이라고 하면, Is Not은 과거의 대학생들이 된다. 둘째, Is 정보의 특징과 변화를 찾는다.

위의 3가지 관점에서 다른 사원과 비교해 볼 때 이동국 씨는 업무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이라는 점에서 변화가 있다. 다른 팀과 비

교할 때 기획팀은 상사와 업무가 까다로운 점이 있지만 전에는 그랬다는 점에서 변화가 없다. 과거의 자율적인 대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직장이라는 조직 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다. 셋째, Is 정보의 특징과 변화로부터 원인을 발견한다. 이동국 씨가 처음으로 근무하게 된 S전자의 기획팀은 전에도 상사가 까다롭고 업무가 힘들다는 점에서 변화가 없어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에 어렵다.

반면에 업무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이라는 것과 과거의 대학생들은 현재의 직장생활과는 다르다는 점은 변화가 있어 문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면 대책도 그만큼 쉽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대책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취하는 잠정대책,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정대책, 원인의 제거가 불

가능한 적응대책이 있다. 그러면 이동국 씨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임시대책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좀 더 친절한 행동과 미소로 상사를 대하고 기획팀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익힌다.

시정대책으로는 기획 업무에 대한 전문 서적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강의를 통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적응 대책으로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선배로부터 경험담을 듣거나, 인간관계 개선에 관한 서적을 읽고 상사와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문제해결의 중요성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떻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 끝으로 의사결정 기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두성
전략기업컨설팅 전문위원

달하나 천강에

적게 먹고 적게 써야한다



정웅 이과대 반도체학과 교수

몇 년전 어느 TV 방송국에서 '잘 먹고 잘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웰빙(?)인가 '참살이'인가 하는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옛날이야기라고 꺼내면 편 세상 이야기처럼 생각되었지만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

여 전국적인 기근이 항상 문제되던 때가 그리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요즘에도 먹을 것이 없어, 부족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이것은 식량 구입 능력(돈인가?)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혹은 분배문제라고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나누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해소될 성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과거 6,70년대만 해도 식량이 부족하여 쌀밥 안 먹기(잡곡밥 먹기), 수입 밀가루 음식 먹기 등이 권장되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명절 때가 가능했다. 사람들은 적게 먹고,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 비만, 당뇨, 소화기 관련 암 등의 질병은 비교적 드물었다. 당시의 사람들 사진을 보면 최근의 북한 사진인가 착각할 수도 있게 한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어린이들의 상당수가 비만 체형이고, 젊은층에서 당뇨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소화기 관련 암이 증가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무엇이 문제

인가. 사람들의 인식이 사회현상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먹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는데도 배고픔의 기억이 사람들로 하여금 과잉 섭취를 하게 한다. 몸은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머리는 과거에 얽매어 왜곡된 삶을 사는 것이다. 참살이 열풍은 이제 그 잘못을 인식하고 제대로 사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참살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본다. 산업혁명 이후 이백년간 인류사회는 수많은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소비해가면서 보다 풍요롭고 안전하며 풍만한 생활양식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로서 안전한 주거환경, 각종 기계 전자 장치를 누리게 되었고 의료혜택과 자유스러운 여행을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즐기게 되었다(경제력이 허용한다면). 물질의 추구는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자원을 탐욕스럽게 소진하므로써 인류는 우리세대에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종말론적 비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달, 화성, 또는 다른 천체에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발상은 자기당착이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삶의 방식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지구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을 제외한 대안은 없다. 다음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생명과 문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방법을 열어야 한다.

적게 먹고 적게 써야 한다. 나눠 먹고 나눠 써야 한다. 그리고 자원을 저축해야 한다. 자원을 남겨서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다음 세대가 세세연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지속적인 축적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 바로 그 방법이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시대 유적, 신석기 시대 유적이야말로 이 땅이 바로 자원 축적의 보고라는 증좌이다. 그리고 우리 선조는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우주의 질리를 꿰뚫는 이론을 이미 완성해놓지 않았다.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박영석 동문 사진, 희망적 메시지 신문 배부대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길



지난 1407호 동대신문 1면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 박영석 대장사진을 1면에서 시인하게 장식한 점은 좋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을 보면 웬지 희망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건학 100주년이라는 시기에 적절했다. 기획취재면을 보면 현재 우리학교 교수의 처우와 연구환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였으며 비록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을 대상으로 급여관련 설문조사 보도한 것도 좋았다. 하지만 여론면을 보면 '총장의 편지'가 5면 톱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부적절했던

것 같다. 또한 열린글터 혹은 다양한 칼럼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다양화 시켰으면 한다.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면 구성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면 기사는 시가성이 좋았다. 1407호 발행주간에 맞춰 불교를 다룬 점은 인상깊었다. 그리고 이에 맞춰 문화면에서 동불연꽃제 기사도 흥미로웠다. 하지만 문화면을 확대해 더 다양한 방향으로 다뤄지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면 평가 외에 동대신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 학내 배부대를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그리고 눈에 띄는 곳에 설치했으면 한다.

그리고 동대신문의 홍보 또한 절실하다. 대학교 학생들은 동대신문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문사다운 활동은 아니지만 활발한 외부 사업을 통해 동대신문을 알렸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학교 여론을 주도하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애독자로서 하는 바람이다.

김종규(불교대 불교3)

메아리

'진품명품' 영화제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나눠 주어라"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아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이 내린 결정이다. 그는 진짜 얼마라면 자신의 아이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만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현명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지난 1월 초 이른바 '부천영화제 사건'이 우리 영화계를 들썩여댔다. 9번째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피판:Pifan)' 준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4년간 영화제를 이끌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해임된 김홍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한 피판(Pifan)의 원래 구성원들이다. 리얼판타는 피판과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 예술계에 가해지는 정치권력에 대항해 시민들을 위한 우리만의 '진짜' 영화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오는 27일에는 리얼판타를 지지하는 가수들이 모여 후원콘서트를 연다. '진짜'를 사칭하는 이들에 대한 예술계의 반발이 뜨겁다.

▲지난 6일 전주국제영화제가 끝났다. 이번 영화제는 프로그램 구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영화제에 참가한 시민들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오는 7월을 준비하는 '피판'과 '리얼판타'는 사정이 좀 다르다. 서로 '진짜'가 되기위해 시민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희생당하는 우리 영화계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최민희 문화부장
mh705@dongguk.edu



피판 VS 리얼판타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동해에서 본 천상병

마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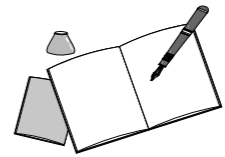
피 묻은 칫솔의 흰 거품과도 같은 파도가 부서진다. 모래톱의 이랑마다 줄지어 새겨지는 문장들. '도피의 헛꿈은 헛꿈일 뿐이다' '함께 사라지지 않는 땅과는 땅이 아니다' '결도는 몸짓은 위선이다. 위선이다' 죽은 천상병이 파도마다 일어나 섬 섬 웃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닷가에서 나의 허망한 그림자도 은박지처럼 구겨진다. 버섯거리는 모래에 나를 밟고 돌아간다. 버리지 않고 버리는 꿈, 나누지 않고 나누는 사랑. 그들의 그림자를 내가 벗으며, 파도뿐인 동해에서 천상병 없는 서울의 없는 파도를 떠올린다.

- 시집 '활주로가 있는 밤' (1999년 문학동네)에서

햇빛이 은지처럼 깔린 동해 바닷가에서, 촌라의 아이들이 그림자를 뿌리치며 달려간 후, 시인도 걸어간다. 빈손뿐인 동해에서 마종하 시인은 천상병을 떠올린다. 그의 거짓 없는 천진성 때문에 시를 쓰지 않아도 시인인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모양이다. 동시에 시인은 서울을 떠올린다. 파도가 부서지는 동해는 순수의 세계이고, 서울은 거짓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시인은 거짓의 공간에서 탈출하여 순수의 세계에 머물고자 한다. 그러나 거짓에서 도피하려는 것은 헛꿈에 불과하며, 거짓 속에 '열의'를 자처하는 것도 위선이기 때문에, 거짓을 벗어나려면 단순한 땅이 아니라 거짓과 함께 소멸해야 한다고 노래한다. 순수의 표상인 죽은 천상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밟고 돌아간다. 모든 거짓과 위선의 그림자를 벗고 정직한 나로 돌아가기 위한 단련의 과정을 거쳐 '버리지 않고 버리는 꿈, 나누지 않고 나누는 사랑'을 꿈꾼다. 선종에서 사용되는 의미처럼 일체의 행위에 있어 물고기가 물속을 가듯이, 새가 창공을 날듯이 걸림이 없는 행동, 무위를 꿈꾼다. 하지만 파도뿐인 동해에서 천상병 없는 서울의 없는 파도를 떠올리며 잠담해 한다. 다시 허위와 위선에 찬 현실로 돌아갈 것을 비극적으로 응시하고 있다. 마종하 시인을 흔히 '시인을 벗고 서를 깨어난 시인'이라고도 하고, 가장 진솔한 삶에 대한 희망 때문에 현실적 고통을 자초하기도 한, 눈물겨운 파란의 시인이라고도 한다. 동국문화의 바다에 훌륭한 시인이 한들이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강상윤

시인 ·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료를 드립니다. TEL: 2260-3491 · 2 FAX: 2279-1270

투고문

그럴수 있을 것인가

오전에는 노교수의 연구실에서 날이 손 책에 허리를 굽혔다. 다음 수업을 들으러 언덕을 넘고 향시 검은 양복을 입은 오 선생의 방으로 들어갔다. 공책에 수많은 저녁들이 한 줄 한 줄 떨어졌다. 글들의 무게가 층층이 쌓였다. 문득 검지를 펴서 여백을 먹고, 가슴까지 갈라진 상처, 지문을 타고 내려온 가슴까지 갈라진 상처를 볼 줄

저녁에, 아픔을 쏟아내는 지문은 상처가 될 것이야. 수만개의 상처가 공돌아서 지문이 되고, 살점

을 굽고서 책은 세월이 되고, 찬찬히 원고를 찢으며 꼭 그만큼 글자를 흘린다.

태어나서 울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그이가 울기 전에는 담벼락이 가난하지 않았을까나. 내 가슴이 아롱이 찢기 전에는 우리는 눈물을 몰랐다. 빛이 더 이상 밤이 오지 않는 밤의 강에서 나이를 모두 털어내고 사라지면 그 만큼 서른 울음으로 만난 것이다. 그는 살지 않고 숨 쉬고 싶다 하였던가.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가을에 색이 없는 낙엽을 보고 싶다.

최두호

(예술대 문창)

독서토론 프로그램 시행 및 1회 독서토론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을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달부터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2. 운영 방법 가. 개 회 : 연중 나. 신청방법 : 확정된 토론일 2주전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gu.ac.kr)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10명 이내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다. 토론방식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란 참조 라. 장 소 :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1층) 세미나실
- 3. 활용 계획 가. 독서토론 내용을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리며 동대신문에 게재 할 수 있다. 나. 독서토론 내용을 책으로 출판도 고려한다.
- 4. 제1회 독서토론 안내 가. 일 시 : 5월26일(목) 오후3시~5시 나. 장 소 :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1층) 세미나실 다. 진 행 : 철학과 최인숙 교수 라. 선정도서 : 엔트르피 / 제레미 리프킨 지음 ; 이창희 옮김, 세종서적 2000 * 단 이번 독서토론에 한하여 2학년이상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제23회 춘계명찰순례개최

- 1. 순례일자 : 2005. 5. 27(금) ~ 5. 28(토) <1박2일>
 - 2. 순례장소 :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 4. 참가비 : 오전원(₩5,000)
 - 5. 접수기간 : 2005. 5. 18(수) ~ 5. 25(수)
 - 6. 접수처 : 본관 학생복지실(☎2260-3048)
 -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5. 5. 27(금) 오후4시, 정각원 앞
-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티셔츠가 제공됩니다.

학생처

KG북 플러스 기획도서 특별할인판매

- 1. 행사기간 : 2005. 5. 9 ~ 5. 20(2주간)
- 2. 행사장소 : 상록원 앞
- 3. 할인도서 1) 외국서적 : 원서(인문사회 중심) 2) 국내도서
- 4. 할인율 1) KG북 외국서적 : 50% 할인 2) KG북 국내도서 : 20% ~ 70% 할인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1회 대학원 실사 게시대 콘텐츠 공모

대학원에서는 실사 게시대를 설치하여 관련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교수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이에 실사 게시대에 들어갈 콘텐츠(슬로건, 모토, 사진, 일러스트)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 주제(내용) : 교내 연구분위기 조성에 대한 참여의식과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내용.
 - 2. 응모부문 및 제출규격
- | 구분 | 제출규격 | 비고 |
|-------------|--------|------------------|
| 슬로건, 모토, 표어 | 제한없음 |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첨부 |
| 사진, 시각 디자인 | 이미지 화일 | " |
| 일러스트레이션 | " | " |

- 3. 공모대상 : 전 동국가족(교수,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 4. 시상금 : 선정작 1점 (현금 20만원)
- 5.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표절될 경우 시상 취소.
- 6. 안내사항 가. 선정된 작품은 실사 게시대(학술관 1층 진입로) 게시 예정임. 나. 매 학기별로 지속적으로 공모 예정.
-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 2005년 6월 10일(금), 대학원 행정지원실(☎ : 2260-3094)
- 8. 발표일자 : 2005. 6. 17(금)
- 9. 주최 및 주관 : 대학원 행정지원실

대학원

2005-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 1. 장학명(장학금액) : 우수장학(등록금 30%) 가.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신입생장학, 보충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005-1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졸업학점이 120인 경우는 15학점),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 · 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5-2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 3. 신청기간 : 2005. 5. 16(월) ~ 31(화)
- 4.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 5.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6.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5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2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대학 행정지원실로 문의 바람
-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나.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나. 지방세 세무별(미)과세증명서 : 부모 각각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다. 기타 가정형편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라. 학업성적 및 사회봉사는 자등으로 접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학생처

이주의 학술 키워드

5·18

'이주의 학술 키워드'는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키워드를 선정해 이를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결합시켜 다양하게 해석해 보는 코너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

이미 학생시위의 수준을 뛰어 넘어 시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위에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참여했지만, 무장 투쟁 과정에서는 젊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주로 참여했다.

민중항쟁만이 갖는 문제점은 과연 구속자나 사망자의 직업 또는 계급구성을 살펴 전향기간 동안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추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중'과 '시민'의 차이점

전통사회의 피지배 대중을 민중이라 지칭하는 것과 산업사회에서 '시민'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민중'을 지칭하는 것은 정치사회학적 의미는 판이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시민과 뚜렷이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민중'이란 대체로 노동자·농민·도시민

민 등을 아우르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주의 제한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층민중'이란 개념이 있다.

광주항쟁은 '시민항쟁'이다

과연 그와 같은 다의적 개념을 사용해 구태여 시민과 민중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시민사회란 부르주아지, 중간층, 프롤레타리아트, 도시민민, 농민 등의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로 혼합된 구성체이다.

해방과 동시에 대중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된 한국사회는 처음부터 시민사회를 경제적 개념보다는 정치적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시민사회를 구태여 민중사회와 구분짓고자 하는 시도는 시민사회를 여전히 부르주아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물역사적 인식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는 시도는 시민사회를 여전히 부르주아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물역사적 인식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둘째로, 항쟁의 이념적 지향이 '민중적'이었다는 데 있다.

항쟁의 민중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삼권 보장" "우리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혈에 걸친 항쟁기간동안 민주적 사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5·18은 민주화 요구를 하는 시민들에 의한 민주항쟁이다.

5·18은 왜 발생했나

정권 찬탈한 신군부 등장 의 희생양

4·19혁명은 수많은 정치파동을 일으키며 영구 집권을 꾀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12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제2인자였던 김홍필을 무력화 시키며 1인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인 유신체제가 성립됐다.

했다. 이로써 부마사태는 잠잠해 지는 듯 했으나 26일 박정희가 사망함에 따라 유신체제의 종말을 고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이 중심인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는 박정희가 살해된 10·26사건의 혼란한 정국에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했다 그 등장의 희생양으로 1980년 광주를 이용 했다.

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며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북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와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호도하며 잔인하게 탄압했다.

이 기간 동안 4,312명(사망 154명, 행방 70명, 상이 기타의 희생은 치렀다.

정권찬탈의 아욕으로 정부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감행한 군사작전으로 5·18민주항쟁은 너무나 큰 상처로 기억되지만, 민중의 자발적인 개혁운동 연방선상에서 일어난 항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읽은 책 이야기

대자연 앞에 겸손해져

자연의 신비는 생각할수록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 얼마 전만 해도 나뭇잎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얇은 얼음이 새벽 조깅 길에 조심스러웠는데, 벌써 개나리 진달래를 지나 아카시아 향기가 동산에 가득하니 대자연의 축복이 새삼 고마울 뿐이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임하면서 지구를 통치할 권리라도 있는 듯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문명의 이기를 들떠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대자연이 주는 이런 향긋한 무한자비가 없다면 벌써 멸종되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런가.

이런 의미에서 최재천 교수가 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길을 걷다보면 무수히 지났을 개미도 많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최재천 저, 호형 출판

구태희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장

이 책은 자연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는 것이다. 이 속에 인본주의의 숭고한 이념도 인간존엄의 실천적 덕목도, 21세기의 최고가치도 원대하게 실현되리라 믿어진다.

이 책에서 말했듯이 자연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는 것이다. 이 속에 인본주의의 숭고한 이념도 인간존엄의 실천적 덕목도, 21세기의 최고가치도 원대하게 실현되리라 믿어진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최재천 저 호형 출판

중앙도서관 신작도서

필진족 싸이질 디지털 U목민...이게 뭐야?
매일경제신문 신언부 IT팀 역음, 매일경제신문사, 2005

이 책은 유비쿼터스 세상을 살기 위한 디지털 키워드들을 상세히 다루었다. 어떤 용어들은 미처 익숙해지기도 전에 소멸할 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쓰고 있는 용어들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자연과학실 소장. (004.6 매69주)

내 안의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

제인 블루스틴 지음, 도솔 옮김, 푸른숲, 2005

"넌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 책은 선생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 자신 안에 잠재된 능력을 모두 발휘해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모음집이다.

누구에게나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은 있을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 선생님들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사회과학실 소장. (371.100973 B658도)

세계의 역사 교과서

이시와타 노부오 지음, 양역관 옮김, 작가정신, 2005

독도문제도 온 세계가 떠들썩하다. 또한 교과서의 역사왜곡문제도 한일간의 기류는 그 언제보다 냉랭하다. 한일 교과서 대화의 핵심적 멤버로 활약해온 두 일본인 학자가 배타적 내서 널리 읽을 수 있는 우익단체의 교과서와 그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각 나라의 교과서 내용과 기술의 배경, 역사인식, 교육 상황 등을 토대로 역사인식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 20세기 전반, 밀접한 공유사 체험을 가진 아시아 5개국과 세계대전 중 전쟁의 가해와 피해가 동시진행적으로 교차되었던 독일, 폴란드, 미국 등을 포함한 6개국이 어떻게 역사를 인식하고 기술하였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있을 것이다.

인문과학실 소장. (907 석225사양)

(우리를 병들게 하는) 생활 속의 음식·독물 60

가라키 히데야키 지음, 김길원 김수, 국립미디어, 2005

식품, 약품, 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사고는 해마다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을까. 자연식품에서부터 생활화학기부터 먼저부터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 60가지를 분석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식품, 약품, 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사고는 해마다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을까. 자연식품에서부터 생활화학기부터 먼저부터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 60가지를 분석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갑각야, 화장품, 담배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치명적인 독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독가스를 흡입했거나 독을 먹었을 때의 응급조치도 담고 있다.

자연과학실 소장. (615.9 단350김)
자료제공=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최원호(사회교육 78졸) 동문을 만나

“우수 인재의 유치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쌓아야 할 것”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칠 때에는 엄격하고 철저하면서도 평소에는 학생들의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고 싶은 것이 교육철학이라면 철학이지.”

엄격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자신의 교육 철학을 이야기하는 서울 대원의 국어고등학교 교장 최원호 동문. 올해로 27년을 맞은 자신의 교육 철학을 이야기 하며 새로운 감회에 젖는 모습이다.

최 동문은 “이러한 나의 교육 철학은 대학 시절 존경했던 우리학과 형기준 교수님께 배우고 본받은 점”이라며 “학문에 임하는 자세는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대원외고 유학반 49명 학생 전원이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 등 미국 명문대에 합격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의 교육 목표와 철학 역시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국제적인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최원호 동문을 만나 현재의 학교생활과 건학 100주년을 맞는 학교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교육자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기억에 남는 제기가 있다면. =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학 등의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제대

로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됐고,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에서 우리 학교 사회교육과에 지원했다. 대학 졸업 후 78년부터 교사 생활을 시작해 대원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지금의 대원외고까지 총 27년간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훌륭하게 성장한 제자들을 보는 것도 뿌듯하지만, 그보다도 어려운 환경임에도 이를 극복하고 힘들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현재는 각자의 위치에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기억에 남고 가슴 가득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 대외적으로 대원외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진학 결과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 현재 진행하고 있는 GLP(Global Leadership Program)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해 해외의 명문대학으로 진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국내의 교육과 대학의 현실이 서글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가 국가의 위상을 떨칠 수 있다면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안으로 삼는다. 현재는 이러한 국제적인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육성해 미국의 명문 대학에만 편중돼 진화시키고 있는데 1, 2년 안으로는 조금 더 문을 넓혀 중국에 있는 북경대 등의 대학에도 진학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학교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좀 더 진취적으로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했으면 한다. 예전에 한 대학의 총장이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요즘 같이 대학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대에는 어느 대학이 먼저 변하고 의식을 전환 하는지가 중요한 승부수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동국대학 역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더해 점차 세계가 국제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학부 학생들의 해외 유학 지원이나 여학 특별 프로그램 등의 마련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예전과 달리 요즘 시대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특기가 아닌 필수 교양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는 것이 대학 생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꿈은 누구한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집념과 열정을 가진 자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인물동정

연승숙 양, 현대문학 주최
신인추천 모집 소설부문 당선



우리학교 연승숙(문창 4) 양이 현대문학에서 주최하는 신인추천 모집 소설부문에 당선됐다. 이번엔 당선된 작품은 ‘뱀꼬리 왕취’란 작품으로 꼬리가 뱀인 거대한 쥐와 물리치료사인 나(화자)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이번엔 수상한 작품을 통해 몸으로 읽혀지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연승숙 양은 “등단한 이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수동정



△이금석(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 표준협회가 지원하는 핀란드 헬싱키 국제표준화회의의 한국대표로 참석



△강태원(물리학과)=오는 15일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AFOSR Wide Band Gap Ferromagnetic Semiconductor Workshop 참석



△권승구(생명자원산업유통학)=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제남시 농수산지유통단지와 수광시 채소재배단지 방문 및 산동성 정부관계자와 면담을 위해 출국



△박명호(정치외교학)=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일본 선거학회 논문발표를 위해 출국

성용길 교수 스승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해



우리학교 성용길(화학) 교수가 지난 13일에 제2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이번 수상은 홍조근정 훈장, 녹조근정 훈장, 대통령 표창 등 전국에 교원 7,42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된 것이다.



산악 그랜드슬램 달성한 박영석 동문 귀국 인터뷰

“도전하는 자만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

원정대의 귀국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준 것을 보니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던 악조건 속에서 해낸 결과인 만큼 너무나 뿌듯하고 오늘의 성공을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다.

- 이번 북극점 원정이 최악의 조건 속 원정이었는데. = 체감 온도가 영하 60도까지 떨어지고 강풍인 블리자드 등이 몰아치는 등 기상대에서 발표하기도 20년 만에 최악의 기상 조건 속 원정이었다. 이로 인해 총 54일의 원정 기간 중 단 하루도 같은 장소에서 쉬지 않고 운행을 해야 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적 부담과 체력 소모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운행 중간에는 짐을 털기 위해 식량과 연

료의 대부분을 버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점에 도착했을 때에는 결국 단 하루 분량의 끼니 밖에 남지 않아 대원들이 10여 일 동안 이를 나눠 먹어야 했다.

- 북극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우리가 북극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모든 대원들이 열차안고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지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까지 총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만큼 도착한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만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꿈이라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감동을 느꼈던 것 같다. -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요즘 대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도전 정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 이 세상은 누구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후배들 역시 항상 어떠한 일이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앞으로의 계획. = 가장 최근에 계획하고 있는 일은 다음달에 있을 대학생 문화원정 국토순례에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또한 지금의 성공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년 봄부터는 에베레스트와 베링 해협 횡단, 안나푸르나의 한국 루트 개척 등의 도전 역시 계속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세계 최초 산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동문이 도전을 시작한 지 77일 만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며 첫 귀국 소감을 밝힌 박영석 동문. “이번 성공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생각”이라는 ‘세계적인 산악 스타’ 박영석 동문의 귀국 소감과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 등을 들어보았다. - 귀국 소감은. = 북극점을 도착한 후 여기까지 오는데 12일이 걸렸다. 그만큼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우리

제8회 에코포럼 : 특별이벤트 ECO - 歌舞. 동국대 '에코포럼'이 생태주의 문화전서트로 기획한 ECO-歌舞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기 오셔서 자연스러움으로 자유로운 예코 해방구를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릅답고 고결한 자연인의 숲살림을 보여주는 <나무를 심은 사람>(애니메이션) 감상, 숲의 내용과 감미로움을 전해주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신이경님의 연주와 곁들여지는 '자연-생명-육방'의 이미지에 빠져보십시오. 이어서 생태환경운동의 상징이신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의 격렬하게 마음을 흔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끝없는 경계발전 신화를 해체하고 자연과 함께 느끼고 즐겁게 자연처럼 사는 생태적 삶에 영감을 받으실 것입니다. 1. 일 시 : 2005년 5월 20일 금요일 늦은 2시 ~ 6시 2. 장 소 : 동국대 예술극장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3. 기획/연출 :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공연지문 : 강 현 (대중음악평론가) 조연출 : 고은희 (동국대 영화학과 석사과정) 4. 주 최 : 에코포럼 5. 후 원 : 동국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주식회사 유한킴벌리

한문해석법 저자 심재동 선생 직강 漢文 특강. 1. 특강목적 : 재학생들의 취업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문특강을 개설함 2. 강의내용 - 한자의 특성 : 제자의 원리 - 구성, 활용의 원리 : 육서 - 한자의 품사 : 단순어, 파생어, 합성어 - 단문의 기본구조 : 주·술·관계 3. 접수기간 : 2005. 5. 30(월) ~ 6. 3(금), 선착순,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약술관 1층) 4. 강의기간 및 시간 : 2005. 6. 27(월) ~ 8. 19(금), 월·수·금 10:00~12:00 5. 수강료 : 5만 원. 문의처 :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 02) 2260 - 3723-9

동국대학교 100년, 불교학과 100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총동문회 총회 안내. 삼보에 귀명정례하옵고, 모교의 건학 100주년을 기념하고 동문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총동문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하오니 동문 제위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5. 5. 27 (금), 18:00 2. 장 소 :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 교직원식당 3. 참가대상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생,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졸업생,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생 4. 문 의 : 02-2260-3835, 8507 불교학과 총동문회 중흥총회 준비위원회 합장

2005학년도 2학기 캠퍼스간 학점교류 안내. 1. 교류기간 : 2005학년도 2학기 2. 신청자격 및 선발 가. 신청자격 : 3학기 이상 마친자로서, 학기당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성적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나. 선발 : 누계평점평균(계절학기 포함)순으로 학과(전공)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 서 허가 다. 캠퍼스간 학점교류자가 휴학을 한 경우 허가 취소 3. 제한사항 가. 강의실 수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과(전공)별 선발인원을 제한 나. 캠퍼스간 동일 및 유사전공이 없는 경우 교류인원 제한 4. 신청기간 : 2005. 5. 18(수) ~ 5. 20(금) 5. 신청서 제출 캠퍼스간 학점교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업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소속대학 교과과에 제출

2004학년도 후기 졸업연기 신청 안내. 1. 대상 : 2004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로 8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편입인정학기 포함) 2. 자격요건 가.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졸업논문 포함) *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등) 불합격으로 수료처리된 학생이 제1전공 졸업요건(논문합격)을 충족할 시 졸업연기신청이 가능함. 나. 복수전공 최저이수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고 2개 학기 내에 복수전공(혹은 교직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3. 접수기간 : 2005. 5. 25(수) ~ 31(화) 4. 접수장소 : 소속 대학 교과과 행정지원실 5. 유의사항 가. 성적처리 완료 후 졸업연기신청 자격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는 개별 통보. 나. 2004학년도 전기에 졸업연기 신청한 후 1학기 추가로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연기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다. 졸업연기자의 학적은 재학생상태로 됨. 라. 졸업연기는 2개 학기까지 가능. 마. 졸업연기신청 결과는 6월 8일(수)까지 신청자 명단을 학사지원실에 통보. 교 무 처

뉴미디어시대, 정보통신·문화·미디어활동가 워크숍 중계

“이제 문화운동도 바뀌어야 할 때”

미디어 접근성 살린 진보적 콘텐츠 개발해야

인터넷과 휴대폰. 현대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들은 더이상 낯선 것이 아니다. 인쇄매체 및 라디오·TV와 같은 방송매체 등이 올드(Old)미디어가 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각종 매체들이 '뉴(New)미디어'로 떠오르는 현실이다.

뉴미디어 시대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정보 등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올드미디어만을 고집한다면 도태될 뿐이다. 이에 따라 '문화운동'도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총 4차례에 걸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미디어액트, 미디어연대, 진보네트워크(이하 진보넷), 미디어참세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디어액트 회의실에서 열린 '뉴미디어시대, 정보통신·문화·미디어 활동가 워크숍'이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은 △1차=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보통신·문화·미디어 운동의 현재와 네트워크 구성, 운동전략 및 운동 프레임에 대한 개괄적 토론 △2차=정보통신·문화·미디어 운동 단체의 뉴미디어 시대 고찰과 대응 방안 모색 △3차=미디어 환경 변화와 진보적 콘텐츠 생산과 배급, 채널 구성 △4차=뉴미디어 시대, 정보통신·미디어·문화 운동의 실천과제(전략) 도출 및 운동 주제 형성을 위

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러한 주제아래 세부적으로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저작권 △표현의 자유, 심의와 규제 △퍼블릭 액세스 △독립영화 제작과 배급 △진보적 콘텐츠 제작 사례 및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먼저 한국문화계의 전반적 현상이 상업적·대중적인 흐름을 탈피하고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미디어 속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대안미디어 창출, 퍼블릭 액세스의 활성화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퍼블릭 액세스란 일반인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영상물을 그대로 방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이러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불완전한 상태다.

다음으로 뉴미디어 등장에 따라 올드미디어에 적용했던 내용 규제에 대한 변화를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규제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연대 선용진 씨는 “이러한 각종 규제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시키지 못한다”며 “현재 뉴미디어 정보이용에 대한 접근권, 과도한 요금제 등이 피상적으로 봤을 때 문화다양성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넘치는 정보에 따라 '저작권'의 개념이 강화되고 있다. 진보넷의 김정우 씨는 “저작권은 공공 정보 접근 가능성을 위축하며, 콘텐츠 생산에도 많은 제약을 따르게 한다”며 “창작자들의 자발적인 문화운동으로 정보공유라이센스를 채택해 보다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인프라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4차 워크숍 때에는 뉴미디어와 진보적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보다 직접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액트의 조동원 씨는 휴대폰 동영상 서

비스를 이용한 퍼블릭 모바일 VOD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인권영화, 비정규직 관련 게임 등을 제공하면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영상패 '씨'의 최영진 씨는 “노동자들의 경우 인터넷 접속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휴대폰 이용률은 높다”며 “이동서비스의 최대 진입장벽은 '요금'인데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자원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무료로 가깝게 책정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액트의 최훈진 씨는 “요즘 이동통신사에서 점차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책제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용자가 많아지면 요금 또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며 “일정정도의 정부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뚜렷한 활동방안 모색,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문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문화·미디어인영에서 활동하는 각 주체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상업적·대중적 시장논리에 점차 입지가 좁아져가는 소수문화 등의 활성화 발전가능 방향을 제안하는 계기가 됐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앞으로 이 같은 자리가 더 많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 및 미디어 생산주체들과의 논의자리를 마련해 이를 우리생활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매체비평

영화편

혈의누

'전통사극의 진화' 새로운 장르 신선한 자극



2년 여 전 한 신문의 구석에 조선시대 소설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 소설은 이전의 소설과는 사뭇 다른 업기적인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었다.

늘 평범하지 않은 소재에 굶주려있던 영화계에서는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영화계의 모 기획자는 이 소재를 영화화 해야겠다고 짐(?)까지 했었다고 한다.

2년 후 같은 소재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년 전의 조선시대 살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현했을까 하는 호기심과 관객의 반응을 살피고 싶은 마음에 극장으로 갔다. 마침내 2시간 동안 '혈의누'를 보고 나오는 느낌은 마치 사극 호러 종합선물세트를 구경하고 나오는 느낌이었다.

영화 '혈의누' 속에 나타난 다섯 가지 살인의 기법은 이미 죽은 사람을 죽장에 꽂아 전신해 대중에게 공포를 주는 효시, 커다란 끊는 가마솥에 산채로 집어넣어 삶아 죽이는 육장, 몸을 푼 채 못하게 만든 후 얼굴에 한지를 붙여 질식사시키는 도모지,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돌로 깨뜨려 죽이는 석형,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방식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의 다섯 가지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피투기는 살인이미지를 즐기는 일부 마니아들이나 좋아할 법한 영화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설의 고향'과 같은 장르에서 보아왔던 여귀와 원혼의 존재감, 무협풍 유사액션, 권위주의적 가치관이 치장되어 익숙함으로 초대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극의 고정관념을 깨는 권총, 물리학적 역학구조의 제지소, 시체부검 현장 등은 관객을 동양적 유교관과 서양적 합리성, 토립과 과학의 접점에 서게 한다. 사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신기하고 잔인한 장면들을 거침없이 2.35 : 1의 시네마스콥 화면에 담아 낸 김대승감독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으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데뷔작인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윤희전생이라는 소재를 끌어들이며 한국영화에서는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던 유니크한 멜로영화를 빚어내기도 했던 그가 5년 만에 만든 이 작품 또한 잔잔하며 순박하고 민족적 정서인 '한'이 등장하는 거장감독의 작품들과는 사뭇 다르다. 정통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분명히 한국적이고 새롭다. 그렇다면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가능성'이 아니었을까.

호러·스릴러·미스터리·멜로 등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시나리오에 조화롭게 장식하고 선보인 이 영화가 주목받고 있다. 말하자면 성공인 셈이다. 어쩌면 '혈의누'는 '스캔들'과 함께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해낸 전통사극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겠다. 단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껏 한국영화가 보여주었던 따라하기 풍토인데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봉어빵처럼 찍어대는 자본본능에서 탈피해 새로운 영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숙한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진단해 본다.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재미있고 새롭고 한국스러운 영화들이 많이 기획되지기를 바라며 다음번 깜짝 놀래켜 줄 한국영화는 반지의제왕 시리즈나 스타워즈시리즈에 못지않을 사극SF환타지시리즈 영화 이기를 기대해본다.

<정>

panic@dongguk.edu

지실우
영화 프로듀서



문화단신

중앙노래패 아리랑 정기공연

친근한 '우리노래'로 함께 즐겨요

제9회 인권영화제 개최

인권운동사랑방이 개최하는 '제9회 인권영화제'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아트시네마(구 허리우드 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국내작품 △해외작품 △비디오로 행동 하라의 세부 테마로 나눠져 총 32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작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저항하는 두 만단의 행보를 쫓는 영화 '엑스맨'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인권영화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대다수의 한국작품에 한글자막이 있으며, 감독과의 자리에도 수화 통역이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작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화면 해설과 대사가 더빙됐다.

7, 80년대 대학을 다니던 우리 선배들은 광장에서, 술자리에서 '함께'라는 말을 되새기며 민중가요를 불렀다. 점점 대학이 개인화·파편화 돼가는 요즘, 우리학교 중앙노래패 '아리랑'은 민중가요를 통해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자 봄 정기공연을 준비했다.

오는 20일 오후 7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유랑'이라는 주제로 △민중가요 11곡 △가요 2곡 △창작곡 1곡 등 총 14곡이 독창·중창·합창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공연된다.

이와 관련해 아리랑 최정환(경영2) 회장은 “즐길 '유'와 아리랑의 '랑'을 따서 만든 '유랑'은 제목으로 '아리랑의 공연을 함께 즐기자'는 뜻이다”며 “이번 공연은 뚜렷한 주제 의식 아

래 다소 무거운 인상을 주었던 기존 공연보다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형식·주제·구성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주목할 만하다. 아리랑 회원이 직접 만든 창작 곡을 부른다는 점, 민중가요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타파할 수 있도록 평소 생활을 주제로 한 곡들을 선정했다는 점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리랑 새내기 손효욱(경영1) 군은 “처음에는 민중가요가 투쟁과 데모를 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접해보니 일상생활을 노래한 아름다운 곡들도 많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학생들이 가요처럼 생활 속에서 민중가요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연습기간 동안 아리랑 회원들은 시험공부와 공연연습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기존 공연과는 다른 곡선정이나 전반적인 공연 분위기 전환 등의 시도로 공연준비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졌다.

민주화를 위한 데모와 투쟁 현장 속에서 군중들의 단합을 이끌며 화합을 유도했던 민중가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중가요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운동권의 노래'라고 평소 민중가요를 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 친근한 '우리들의 노래'로서 한걸음 다가가는 것을 어떨까.